뺨 때리고 얻은 벼슬

허름한 차림의 우암 송시열 대감은 경기도 장단 고을로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주막집에 들어가 있었다.

잠시 후 젊은 무관도 비를 피해 주막으로 들어와 한 방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데 무관이 먼저 말했다.

“영감, 심심한데 장기나 한 판 두어 봅시다.”

“그렇게 합시다.”

정승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구는 무관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송 대감은 시치미를 떼고 그의 장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.

장기 한 판을 다 두고 나자 무관이 또 먼저 입을 열었다.

“영감은 그래, 어떤 낮은 벼슬이라도 해 보았소?”

“예, 해보았지만 뭐 벼슬이라야 대수롭겠습니까?”

“영감의 성명은 뭐요?”

“예, 저의 성은 송이고, 이름은 시열이라 합니다.”

“어?”

무관의 안색이 금방 새파래졌다. 송 정승을 몰라보고 무례하게 군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때 그의 재치가 유감없이 발휘뒤었으니,

그는 벌떡 일어나 대감의 뺨을 철썩 후려갈기고 나서

“이 고얀 영감! 네 어찌 덕망이 높고, 선정을 베풀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송시열 대감의 이름을 함부로 지껄이는고?”

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 비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.

“참으로 대장부다운 기개다. 큰 일 할 사람이야.”

하며, 송 대감은 후일에 그의 신분을 알아내어 평안 병사에 임명해 주었다.